

[보고]

차기 총장 선임 방식에 대한 진행 경과 보고(6)

지난 5차 경과 보고(5. 13.) 이후 차기 총장 선임 관련 진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총장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위원 참여 보류 조치(5. 14. 통지)

- 본 노동조합은 총장선거 관련 참여 협의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위원, 행정관리자협의회 대표단, 대의원회,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위원 참여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고 선거규칙 및 공정선거 공표 등이 이뤄질 때까지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신자 교수회의장

(경유)

제 목 총장 후보 선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위원 참여 보류 통지

1. 대구대학교 교수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노동조합은 차기 총장 후보 선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위원 3인을 추천하며, 1차 회의에 참여한 바 있으나 총장 후보 선출방식에 대한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13대 총장 후보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일정(안)'이 직원위원과 사전 협의나 합의 없이 작성된 채로 회의에 제출되어 잠정 총장 후보 선거일을 공지 하였고 교원위원이 다수를 점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 과반 표결 방식으로 모든 의결행위를 할 것이 라고 천명한 데 대하여 동의할 수 없으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완결될 때까지 직원위원의 참여를 잠정 보류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가.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류 등 선거 규칙의 제정 및 확정
 - 나. 가목에 따른 선관위의 기본 임무인 선거 절차 수행 및 공정 관리 의사 공표
3. 현재 진행 중인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한 법인 주관 협의가 원활하고 조속하게 진행되어 절차적·법규적 정당성을 가진 신임 총장을 선임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위기 극복이라는 구성원의 염원을 함께 성취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협조의 정신이 발휘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4. 이와 관련된 교수회의 의견이 있으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법인 주관, 차기 총장선임 방식 관련 4차 협의 회의(5. 21.(금) 18시, 참석자 직전과 동일)

- 3차례의 회의에서 '법인 규정으로 총장후보자 선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총추위) 설치 조항을 두고 입후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작업을 거치도록 하며, 법인 이사회에 추천할 후보자는 단수가 아닌 복수로 추천'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이에 교수회가 복수 후보 추천 문제와 총추위 설치 관련 협의안을 마련하여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음.
- 하지만 교수회는 3차 협의의 틀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지난 5월 10일 법인으로 교수회규정 개정안을 통보하여 5월 17일까지 회신을 요구한 바 있고, 총장후보자 선출에 대한 근거 규정을 교수회 내부규정으로 두고자 하는 등 상기의 개선 방향에서 벗어난 것이었음.
- 법인 주관의 4차 회의에서 노조와 법인 측은 교수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법인 영광학원 대구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 규정(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총추위 구성 및 운영, 권한, 추천 방법 등이 담기도록 제정안([붙임])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총추위 구성에서 노동조합과 교수회의 구성원 비율을 반영하여 구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은 현행의 교수 독점적인 총장후보 선출 직선제가 구성원간의 대립과 갈등을 양산하는 방식으로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확실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대학의 위기 극복과 존속을 위한 총장선출 방식이 되기를 염원하는 노동조합은 3자 협의 내용이 성실히 준수되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직원사회의 향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21. 5. 24.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